

우화 · 소설 형식에 경영전략 접목시킨 퓨전 경영서들 인기

쉽고 분량 적어 직장인들 선호해

요즘 서점가에선 우화나 소설 형식을 빌어 경영전략을 소개한 경영서들이 부쩍 늘었다. 이 책들은 주로 직장인의 자기혁신이나 리더십, 경쟁 전략 등을 우화를 끌어들이거나 소설적 구성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쉽고, 분량이 많지 않아 읽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존의 경제경영서처럼 딱딱하지 않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직장인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우화를 끌어들이는 책들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스펜서 존스, 이영진, 진명출판사), 《늑대 뛰어넘기》《레밍딜레마》《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이상 데이비드 허친스, 김철인, 바다출판사) 등이 있고, 소설적 구성을 활용한 책들은 《경호!》《하이파이브》《열광하는 팬》(이상 셸튼 보울즈 외, 조천제 외, 21세기북스), 《펼떡이는 물고기처럼》(스티븐 C. 런던 외, 유영만, 한언출판사), 《엑스칼리버 프로젝트》(맥스 랜더버그, 김명렬, 푸른솔) 등이 있다.

우화와 소설로 경영이론 쉽게 설명해

현재까지 140여만부가 팔려나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이 분야에서 선풍을 잡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니퍼,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와 햄, 허라는 꼬마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서 치즈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나갈 것인지 보여준다. 이 책은 마침 IMF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얻어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늑대 뛰어넘기》《레밍딜레마》《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는 조직학습과 조직변화 이론

가인 스펜서 존스의 3부작이다. 《늑대 뛰어넘기》는 학습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행동영역과 학습문화를 통해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영역을 양과 늑대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다. 《레밍 딜레마》는 무리지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레밍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조해내는 개인적 숙련을 강조한다.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는 동굴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믿고 평생 동굴 안에서만 생활하는 원시인들을 통해 사고 모델의 검증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도모가솔린의 창립자인 셸튼 보울즈와 컨설팅 그룹 켈블랜차드의 회장인 케네스 블랜차드가 함께 지은 《경호!》《열광하는 팬》《하이 파이브》는 소설적 구성을 통해 각각 회사 회생, 팀워크, 고객만족 등을 이야기한다. 《경호!》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공장 책임자로 발령받은 폐기 싱클레어가 '경호' (共和) 정신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킨다는 줄거리다. 《열광하는 팬》은 요정 찰리를 등장시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가르쳐준다. 《하이 파이브》는 한 실직자가 초등학교 아이스하키팀의 코치를 맡게 되면서 따뜻한 인간애와 팀워크를 배워나가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펼쳐간다. 《엑스칼리버 프로젝트》는 주인공 알렉스가 고객의 불만을 가치창출로 연결시키는 엑스칼리버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동기 부여의 이론과 법칙들을 쉽게 설명해나간다.

조직과 개인의 조화 역할해

이상 소개한 책들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제외하면 모두 조직과 개인의 조화를



다루고 있다. IMF 이후 '더 이상 직장이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의 '탈직장적인' 생각을 담은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유행했다. 《더 이상 우울한 일요일은 없다》(로빈 A. 쉬어러, 이진홍, 청아출판사), 《탈직장 프로젝트》(브루스 탈건, 강우란 외, 친구미디어), 《프리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다니엘 핑크, 석기용, 에코리브르) 등이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책들이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또한 조직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경제가 점차 안정돼가면서 이제 조직과 개인의 연결고리를 찾는 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우화나 소설 형식의 책들도 대부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주제들은 각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 기업에서 이 책들을 단체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21세기북스 영업마케팅본부 신민식 부본부장은 앞으로도 우화나 소설에 경영전략을 접목시킨 '퓨전' 경제경영서들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부본부장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직장인들이 딱딱한 형식의 서술형 경제경영서를 읽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보들은 모두 인터넷 콘텐츠화됨으로써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우화나 소설 형식의 책들은 그런 정보성 콘텐츠가 담아낼 수 없는 감동과 재미를 담아냄으로써 직장인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장근 기자